

사실 파가니니의 음악에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능가하는 서정성과 섬세한 낭만주의가 깃들어 있음에도 이를 잘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교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과장된 제스처와 악마적인 표현으로 기교적인 어려움을 감추려 하거나 테크닉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셔는 테크닉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듯하다. 아니 그보다는 테크닉은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올 것 같다. 아무 의미 없이 휘 자나가버릴 수도 있는 빠른 장식음에도 은근하고 세밀한 뉘앙스를 보태는 그녀의 음악적 감각은 일품이며, 악보에 적혀 있는 연주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악곡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연주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를 반영해내는 그녀의 연주는 매우 특별하다. 그녀는 이미 20대의 나이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파가니니를 넘어섰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넘나드는 균형감각

피셔가 넘어선 것은 파가니니뿐만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 피셔는 단지 바이올린만 연주하는 음악가가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도 매우 뛰어나다. 뛰어난 그녀의 실력은 지난 2016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인 리사이틀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날 공연에서 율리아 피셔는 앙코르로 선보인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에서 피아니스트로 변신하여 피아니스트 마틴 헬름헨과 나란히 앉아 흥겨운 연주를 들려주며 청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피셔에게 피아노는 바이올린만큼이나 중요한 악기이다. 어쩌면 그녀에게 피아노가 더 중요한 악기인지도 모른다. 네 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피셔는 얼마 후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아노를 매우 좋아하게 됐지만, 그녀의 오빠가 피아노를 연주하므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길 원했던 어머니의 소망에 따라 바이올린 연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빠른 속도로 바이올린 연주에 숙달한 피셔는 12세가 되던 1995년에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바이올린의 연주 기교가 매우 뛰어났던 피셔는 처음엔 바이올린 비르투오소로 알려졌지만, 차츰 연주회와 음반을 통해 바이올린만큼 훌륭한 피아노 연주 솜씨를 선보이며 피아니스트로서도 알려지게 되었다.

성격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악기를 비슷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건 음악가로서는 매우 큰 장점이다. 바이올린이란 악기는 '선율악기'이며 톤을 중요시하고 감정 표현과 서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피아노는 단선율뿐 아니라 여러 성부를 연주할 수 있으며, 바이올린에 비해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더 유리한 악기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대개 활을 고르게 쓰고 왼손의 비브라토를 잘 구사하여 톤을 아름답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작품 전체를 살펴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확실하게 바로 그 음이 나는 악기이므로 보잉이 불안정하여 스크래치가 날 걱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음악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더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아마도 율리아 피셔가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도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좀 더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음악작품을 파악하고 새롭고 참신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독일 고전음악에서 빛나는 피셔의 바이올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넘나드는 피셔의 균형감각은 어떤 작품에서나 빛을 발하지만, 특히 바흐와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등 독일계 작곡가들의 고전적인 레퍼토리에서 더욱 강세를 보인다. 네덜란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들어 보면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악기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연주가 무척 돋보인다.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프레이징과 투명한 음색은 모차르트 음악의 우아한 감성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특히 그 자신이 작곡한 카덴차를 사용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작품들을 담은 두 장의 음반 역시 피셔가 과연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인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음반으로 꼽을 수 있다. 불필요한 템포 변화를 배제한 채 악보 자체에 충실한 그녀의 연주는 꾸밈없이 순수하지만, 그러면서도 슈베르트의 선율에 담긴 역동성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그녀의 슈베르트 연주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그 활기와 추진력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사이에선 난곡으로 통하는 슈베르트의 환상곡 C장조에서 그녀는 슈베르트 선율의 깊은 맛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곡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7년에 발매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다니엘 뮐러 쇼트와 함께 연주한 이중협주곡 음반(Pentatone)에서 피셔는 날렵하면서도 압도적인 연주로 강한 인상을 전해준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의 부담스러운 솔로 도입부에서부터 것처럼 강렬하고 날렵한 연주로 듣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는 흔치 않다. 그녀의 음색은 충실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강하면서도 예민한데, 그 절묘한 이중성이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에 생기를 더해준다.

이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의 협연 무대에서 율리아 피셔는 그녀의 장점이 잘 살아날 수 있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그녀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발매한지도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아마도 이 곡에 대한 그녀의 관점도 새롭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 3월 런던 필하모닉과의 협연 무대에서도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섬세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통념을 깬 강력하고 화려한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았던 피셔는 아마도 이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의 연주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